

FOCUS
.....

울지 않는 돌

김진희展 4. 14~5. 27 디스위켄드룸

김진희의 개인전 <새벽, 보인 적 없는>에는 연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무표정한 얼굴을 한 둥근 몸의 여자들이 등장한다. 부조로 쌓아 올린 듯, 종이로 오려낸 듯 불룩하게 그림자 진 여자들의 몸은 누드(nude)라기엔 무엇도 입지 않은 몸, 알몸(naked)에 가깝다. 아니, 최소한의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알몸이라는 단어 역시 이 여자들에게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무겁고, 단단하고, 매끄러워 보이는 여자들의 몸은 머리에 달려있을 뿐인 하나의 덩어리, 정지된 사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몸은 낮과 밤의 먹고 자는 동물적인 욕구나 떠돌고 싸우는 인간적인 활동과도 거리가 먼 몸이다. 이들은 그저 이쪽 아니면 저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만 앉아있다. 비록 제목과 배경이 암시하듯 이들이 극장, 계단, 음수대와 같은 지극히 문화적인 공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이 공간에서 인물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김진희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화면 속에 하나의 장면을 가두는 일, 또는 조각처럼 새겨 넣는 일일 테다.

조용한 눈짓, 영원한 정지

비교적 단순한 도형으로 이뤄진 배경과 인물들은 강한 대비의 그라데이션이 강조하는 외곽선으로 서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마치 칼로 새긴 듯 예리하게 떨어지는 형태의 테두리는 인물의 둔중한 몸과 대비되며 서늘한 인상까지 준다. 현실을 모사하는 대신 인공적인 형태와 명암을 극도로 강조하며 김진희는 캔버스라는 유일한 회화의 물리적 현실 위에 가볍게, 그러나 끈질기게 자신의 상상 속 장면을 고정한다. 한 꺼풀 벗겨낸들 이면에 숨겨놓은 장면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김진희의 회화가 우리에게 개방하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가 붙잡은 장면들이 전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활성화하는 침묵의 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입을 다문 채 아직 '보인 적 없는' 표정을, 감정을 품고 있는 인물들은 물론 우리를 무작정 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첫 마디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줄 만큼 참을성이 좋아 보인다. 김진희의 탈성화되고 사물화된 인물들이 꿈쩍 않고 우리를 또는 누군가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면, 테두리가 부러 강조된 회화 속 장면 역시 캔버스의 표면에 완벽히 정지되어 있다. 기다리는, 정지된 대상들. 그러니 김진희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정지, 극도로 수동화된 사물의 영원 같은 순간이라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꿈쩍도 할 수 없는 사물, 돌처럼 단단한 피부를 가진 침묵하는 사물로 만드는지 안다. 그것은 상실이다.

상실을 경험한 주체에게 상실된 대상이라는 유일한 의미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에 주체는 대상 뿐만 아니라 의미를, 말을, 세계 전체를 잃는다. 비탄과 슬픔에 빠진 주체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잃은 사물이 되어간다. 사물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나 혼자서 사라질 수도 없다. 극도의 무감동 속에서, 내장도 피부도 없이 주체는 영원히 그 자리에 무거운 짐처럼 틀어박힌다. 그러고는 그곳이 세계를 쳐다본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듯이. 그 시선은 느리고 무겁게 우리가 상실한 것들의 자리를 일깨운다. 비록 이것이 지독한 오독이라 할지라도, 나는 김진희의 회화가 불러들이는 묵직한 침묵의 감각, 영원한 정지의 심상이 상실 속에 있는 우울한 주체들의 아늑한 피난처라고 이해한다. <새벽의 아래 불을 켜다>의 뒤돌아보는 여자들이 조용한 눈짓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침묵하는 사물들의 세계, 울지 않는 돌들의 테이블에 합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그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보인 적 없는 새벽'을 보기 위해서는, 상실된 것들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강한 슬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벽의 아래 불을 켜다)
캔버스에 아크릴릭
180×230cm 2023 김진희
(1990년생)은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활동하는 젊은
페인터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새벽녘 이야기'를 상상했다.
단단한 몸체, 미묘한 표정,
멜랑콜리한 분위기로 미지의
사건을 그려냈다.

/ 이 연 속

